

#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주 인식

장승희\*

- I. 머리말
- II. 추사의 생애와 임계국면
- III. 추사의 제주생활에 나타난 제주 인식
- IV. 추사의 제주 인식, 변화의 계기와 의미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에서 제주에 대한 인식과 변화, 그 요인을 탐구한 것이다. 추사는 유복한 가정환경을 지닌 왕족으로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과 개성 있는 영혼의 소유자로, 젊은 시절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지적·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연경 경험은 그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준과 동시에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제주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는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자존감과 자부심에 상처를 안겨준과 동시에 그의 예술과 세계관에 있어 일대 전환기이기도 하였다. 추사에게 임계국면(threshold)이었던 제주 유배는 연경 경험과 더불어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추사는 주역(周易)의 원리에서 곤경을 수용하는 법을, 불교를 통하여 겸허와 달관의 자세를 배웠다. 이후 추사체의 개성적인 ‘괴(怪)’는 고졸한 ‘졸(拙)’로 변화하였고 독창적 예술 경지를 이루게 된다. 제주 유배 경험을 통하여 제주의 사물과 자연에 대한 인식, 예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하는데 그 결과로 추사

---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체가 정립된 것이다. 추사의 편지에서 드러나는 제주인, 제주 자연, 제주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당시 제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제주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다 하겠다.

주제어 : 추사 김정희, 인식, 추사체, 유배문화, 임계국면, 주역, 불교, 괴(怪)와 졸(拙).

## I. 머리말

최근 제주의 인구유입과 지가상승은 제주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현상이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지역적·자연적·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며 나타난 결과이다. 제주는 한때 독립된 탐라(耽羅) 국가였던 적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유배지로나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천대받던 제주는 오늘날 “그 곳에 있다는 인식만으로 마법에 걸리는”<sup>2)</sup> 즉 팍팍한 현실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은 환상과 마법의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예측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미래 제주도 예측이 쉽지는 않다. 또한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속단할 수도 없다.

오늘날 제주는 제주 역사에서 임계국면이라고 할만하다.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 역사(Big History) 관점에서 임계국면의 중요성, 인류 역사에서의 그 의미를 분석한<sup>3)</sup> 크리스천(David Christian)에 의하면 임계국면

1) 김승범, 『제주매일』(2016.05.04), “올 제주인구 65만 돌파…기존 주택계획 등 무의미”,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715>(검색일: 2016.05.05).

2) <https://brunch.co.kr/@kinzz00/13> by 꾸마(검색일: 2016.05.06).

3) 농업의 시작,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하나의 중요한 계기들에 의한 임계국면에 의해 역사는 커다란 변화를 거쳤고, 그 변화는 큰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137억년 우주의 거대 역사관에서 보면 인류사는 참으로 미미하고, 세이건(Sagan)의 우주력(Cosmic Calendar)에 의한다면 우주의 365일 중 인류가 출현한 것은 마지막 날 오후 10시 30분경이며, 인류 역사는 겨우 2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Carl Sagan(1977), *The Dragons of Eden: Speculations on The Evolution of Human Intelligence*, 임지원 역, 『에덴의 용』,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24-27쪽.

이란 “어떤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 혹은 경계”로,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나 물질이 나타나는 지점 혹은 시기이다.<sup>4)</sup> 우주달력의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이 0.15초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 의미가 미미하다. 그럼에도 인류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였고, 역사에는 집단지성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 인물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의 삶과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해준다.

제주와 연관된 인물들의 제주 경험은 임계국면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암 김정(冲菴 金淨, 1486~1521),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은 유배 왔던 인물들이다. 안무어사로 연을 맺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목사로 연을 맺은 규암 송인수(圭菴 宋麟壽, 1499~1547) 등 오현(五賢)은 조선 성리학 통치이념을 구현한 인물로 평가받아 굴림서원(橘林書院)에 배향되었다.<sup>5)</sup> 오현의 정신은 사학재단의 명칭에 반영되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김정은 『충암록』에 「제주 풍토록」을 남겼으며, 정온은 위리안치 상황에서 어떤 곤란과 우환에서도正道(正道)를 잃지 않도록 중국 은대부터 남송의 59인의 행적을 모아 『덕변록(德辨錄)』을 지어 자신을 수양하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83세에 100일간의 길지 않은 유배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유림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였다. 광해군의 실정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 유배를 당한 간옹 이익(1579~1624)은 제주 여인과 혼인하였는데 제자들을 길러 학풍을 진작하기도 하였다.<sup>6)</sup>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 정조10~1856, 철종7)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근거하여 금석학과 고증학 분야의 업적을 남긴 실학자이다. 그는 당시 서예와 그림에서 이른바 ‘완당바람’이라 칭해질 정도로 문

4) David Christian·Bob Bain(2013), *Big history: the Big Bang, life on earth, and the rise of humanity*, 조지형 역, 『빅 히스토리』, 서울: 해나무, 2003, 22쪽.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이 1578년에 처음 배향되고, 1695년에 끝으로 송시열이 배향되어 100여 년에 달하여 추존이 이루어졌다.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eju.grandculture.net>(검색일: 2016.04.25).

6) 『한라일보』(2012.01.09),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간옹 이익(李翼)과 김만일의 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8454000387599240>(검색일: 2017.03.30).

화 흐름을 주도한 예술가로,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물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9년은 철학은 물론 서체마저 변화시켰을 정도로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임계국면이었다. 그의 제주 유배 역사는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정도로<sup>7)</sup>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완당전집』<sup>8)</sup> 출판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추사 연구는 서예가에 초점을 둔 문화적·예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불교관련 연구<sup>9)</sup>, 척독<sup>10)</sup>과 시,<sup>11)</sup> 교류관계 연구,<sup>12)</sup> 제주유배 관련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문학적·교육적·문화적 활용 연구들로<sup>13)</sup> 추사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추사의 철학적 인간학에 더하여 추사의 제주 경험을 토대로 제주 인식의 특징, 변화와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인식(認識, recognition, perception, knowledge)은 객관 대상과 무관하게 주체의 관념적 작용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다. 앎의 형성은 대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 주체로서 이성의 능동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인식은 주체와 대상의 관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 『뉴시스 제주』(2015.03.29),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센터, 내달 추사 김정희 체험 행사”(검색일: 2015.09.30).

8) 유흥준, 『완당평전1,2,3』, 서울, 학교재, 2002abc.

9) 임종옥, 「秋史 金正喜의 佛教詩 연구」, 『동악어문학』 47, 동악어문학회, 2006, 227-252쪽.

10) 이병기,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197-231쪽.

11) 김현권, 「秋史 金正喜의 산수화」, 『한국미술사학회』 39, 2003, 181-219쪽.

12) 이종찬, 「조선후기 儒·佛 詩人의 交涉樣相 : 東岳과 秋史의 경우」,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7-22쪽.

13) 양필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55-74쪽; 양진건, 「추사의 제주입도와 초기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추사연구』 3, 추사연구회, 2006, 9-28쪽; 현명관·장애란,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 추사 김정희의 전각의 추사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7,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2, 121-130쪽; 양진건·현은선,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17, 동서사상연구소, 2014, 244-265쪽; 임춘택, 「제주 유배시기 추사 김정희의 치유적 글쓰기와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13-248쪽; 배영환, 「추사의 제주 유배 연구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 『인문학연구』 18,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05-132쪽.

계맞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경험에 의한 앎을 통해 과거의 인식 구조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식이 구성된다. 구성주의 인식론 관점에서 앎이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서 개별적 의미의 형성” 과정으로, 지식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와 구성이며, 그러한 지식의 특성은 상황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인 것이어서 주체의 능동적 사유를 통한 지식 구성이 중요하다.<sup>14)</sup> 이에 근거하여 추사의 제주 인식에 접근해보면 추사가 제주 유배의 경험들을 어떻게 이전 경험과 지식에 구성하여 새로운 앎으로 발전시켰는지가 관건이 된다.

## II. 추사의 생애와 임계국면

### 1. 추사의 삶과 학문 특성

칼 만하임은 지식사회학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인도 이른바 ‘사회적 존재 구속성’(social sein gebunden-heit)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식인이 아무리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진리를 정립한다 해도 시대정신, 생애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문과 공동체적 질서를 중시했던 유교적 사회문화에서 자란 인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추사가 살았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조선 말기로, 정조의 죽음 이후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시대로 세도정치가 이어진 시기이다. 사상적으로는 송유억불정책이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불교에 대한 직접적 억압은 많이 줄어든 시기이고, 성리학적 질서가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성리학을 비판하며 실학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발전적 측면도 존재하였고,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중인과 서얼(庶孽)들이 정치와 학문에 참여하게 되는 변화도 있었다. 정조의 즉위 다음해(1777년) 선포된 ‘정유서얼허통절목(丁酉庶孽許通節目)’에 의해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의 대세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추사의 천재적 재능은 일곱 살 때 대문에 붙인 입춘첩에 대한 일화에서

14)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2005, 62쪽.

15)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8, 141쪽.

드러난다. 당시 세혐(世嫌, 남인과 노론의 질시)의 집안사람인 영의정 체재공이 지나가다가 방문하여 “이 아이는 필시 명필로서 이름을 한 세상 떨칠 것이요.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할 것이니, 절대로 붓을 잡게 하지 마시오,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게 하면 크게 귀하게 되리라.”하였다고 한다.<sup>16)</sup> 어린 시절 글씨가 얼마나 훌륭하였으면 스승인 박제가와 영의정까지 입춘첩에 대한 일화가 두 건이나 있겠는가. 그 정도로 글씨에 혼이 있었으니 추사의 예술가적 능력과 기질은 천부적이었던 듯하다. 또한 추사의 학문적 기반은 당시 선비들처럼 당연히 유교였다. 과거급제를 위해 유교경전을 공부하였고, 『주역(周易)』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것으로 불교로, 집안에 원찰(願刹)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봉은사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불교를 신앙으로 가까이 하였다.<sup>17)</sup>

추사의 젊은 시절들이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세 때 개성유수인 백부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갔고, 15세에 한산 이씨와 혼인하였지만 20세에 이씨가 사망하자 23세에 예안 이씨와 재혼하였다. 12세에 양부와 조부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16세에 친모 기계 유씨가 36세 나이로 죽었으며, 그 해 스승인 박제가가 신유박해로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으며, 21세에는 양모 남양 홍씨가 죽었다. 유교사회의 가치관에서 교육받은 추사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가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개성적 기질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는 이러한 환경의 산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유배 시절 추사는 환갑 때 원당사찰인 화암사 중건에 「무량수각(无量壽閣)」, 「시경루(詩境樓)」 등의 현판 글씨를 써서 보낼 정도로 집안을 쳤었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가문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배려심 때문이었던 듯하다.

추사는 당시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학적 분위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증학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였다. 그는 주체적 비판 정신에 의거하여 청나라 연경에서 체험한 다양한 학문들을 수용하여 특정한 권위에 의

16) 유홍준, 『김정희』, 서울: 학교재, 2006, 30쪽.

17) 장승희, 「김정희, 불심을 바탕으로 조선문예를 빛내다.」, 『불교평론』 제64호, 불교평론, 2015, 238쪽.

지하기를 거부하였고,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 학파를 두루 고찰하여 각 입장의 진실성을 찾아 종합하는 특징을 지니는데,<sup>18)</sup> 추사의 학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다방면으로 지식욕이 풍부하여 천문·산술·금석(金石)·성운(聲韻)·철학·선학(禪學)·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선진(先秦)·한·송·명·청 여러 시대의 사상들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전통과 문화 속의 인간을 존중하고, 경학 연구에 있어서도 존고(存古) 및 사승(師承)과 가법(家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실증을 통하여 올바른 의리를 구하고, 비판적이면서도 개개 사실에서 실(實)을 찾아서 종합하는 긍정적인 논리를 추구함을 볼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학문적 특성과 자세는 풍요로운 환경과 탐구적 기질, 다양한 삶의 경험 등에 기인한다. 학문적 탐구열에 비해 저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지적 탐구열과 환희를 인지적 논문보다는 주로 감성적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sup>20)</sup> 자신의 편지에 “저는 평생 저술들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시다. 이와 같은 문자들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장 단지나 식초 향아리 덮는 데 쓰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이것을 즉시 명하여 찢어버리라고 하십시오.”<sup>21)</sup>라고 쓰고 있다.

유홍준이 “나이 50에 이미 학문과 예술 모두에서 당대의 대가 위치에 올라 있었다.”<sup>22)</sup>는 평가에서 드러나듯 추사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 보통 유학자들의 지식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왕희순(1786~1847)이 ‘해외묵연(海外墨緣)’에서 음운·천문·경학·시·문장·서예·전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급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다고 추사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추사의 생애는 유교사회에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삶, 천재적 재능과 개성적 기질을 지닌 자유인으로서의 삶,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예술과 학문을 종합한 선비로서의 삶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책임

18)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심산, 2005, 361쪽.

19) 위의 책, 360쪽.

20) 장승희, 앞의 논문, 219쪽.

2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八)> : “小人之於平生, 不欲以著述自見. 如此文字, 便不欲留稿, 醬瓿醢瓷, 俱無不可. 卽命扯去, 不勝心禱.”

22) 유홍준, 위의 책, 2006, 156쪽.

감, 자유인으로서 개성, 선비로서 탐구열을 갖춘 그의 삶은 당시 선비들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천재적 재능과 자유로운 사유에서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기질이 더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 2. 연경 체험 : 학적 전회(轉回)와 자부심의 상승

추사의 삶은, 아버지와 스승인 박제가에게 교육받은 24세 이전의 교육기, 연경에 다녀온 24세 이후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35세까지의 학예 연찬기, 관직생활을 시작한 35세부터 55세 귀양 전 20여 년의 활동기, 제주 유배와 다시 1년의 복청 유배를 합한 10년의 유배기, 그리고 해배 이후 71세 서거하기까지 8년의 만년기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임계국면은 연경 체험과 제주 유배이다. 1809년 순조9년 10월 28일, 부친인 김노경이 동지검사은부사가 되어 연행을 갈 때 추사는 자제군관으로 다음 해 3월 1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채 5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기는 학문적·예술적 자극기로 추사의 세계관 자체가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추사의 만년 영정을 보면 호상(好相)이면서 귀상(貴相)을 지니고 있다. 젊은 시절 중국 연경에 갔을 때 왕족 가문에다 학문은 물론 서화(書畵)와 시(詩)에 능한 호탕한 젊은이를 연경 중국학자들은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완원(阮元, 1764~1849)과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교류하면서 추사는 청의 사상과 문화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조선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경 체험은 그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주었고,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도록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당시 추사는 모든 것을 연경 경험을 기준으로 재단·평가하여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듯하다.

추사의 유복한 환경과 탁월한 예술적 능력, 다른 유학자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과 기질은 당시 경외(敬畏)의 대상이자 질시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철종실록』의 「졸기(卒記)」를 보면, 그의 생애와 기질,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압축되어 있다.

전 참판 김정희가 졸(卒)하였다. 김정희는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써 총명하고 기억력이 투철하여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읽었으며, 금석문(金石文)과 도사(圖史)에



깊이 통달하여 초서·해서·전서·예서에 있어서 참다운 경지를 신기하게 깨달았었다. (a) 간혹 ‘거리낌 없는 바’[其所無事]를 행했으나, 사람들이 자황(雌黃)하지 못하였다. 그의 중제(仲弟) 김명희와 더불어 훈지(堦簾)처럼 서로 화답하여 울연(蔚然)히 당세(當世)의 대가가 되었다. 조세(早歲)에는 영명(英名)을 드날렸으나, (b) 중간에 가화(家禍)를 만나서 남쪽으로 귀양가고 북쪽으로 귀양가서 온갖 풍상(風霜)을 다 겪었으니, 세상에 쓰이고 혹은 버림을 받으며 나아가고 또는 물러갔음을 세상에서 간혹 송(宋)나라의 소식(蘇軾)에게 견주기도 하였다.<sup>23)</sup>

그의 기질 묘사(a)에서, ‘무사(無事)’는 ‘걸릴 것 없음’ 혹은 ‘거리낌 없음’의 뜻이다. 젊은 시절 추사는 귀한 집 도련님으로 20대 청나라 연경에 가서 지적 교류와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돌아왔고, 그 경험으로 그는 모든 대상들을 대함에 자신만만함이 넘쳤으며, 심지어 오만함에까지 이르렀던 듯하다. ‘자황(雌黃)’이란 “옛날 시문(詩文)의 오기(誤記)된 부분에 자황을 칠하여 정정(訂正)하였는데, 시문의 첨삭(添削) 또는 변론의 시비를 이룸”이란 뜻이다. 그의 그런 자신만만함, 나아가 오만함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의 재능과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쉽게 비평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추사의 집안을 살펴보면, 자신만만함의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는 경주 김씨 월성위(月城尉)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할 때 수렴청정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추사의 11촌 대고모이다. 영조는 추사의 증조부인 김한신(金漢薰, 1720~1758)<sup>24)</sup>을 사위로 맞이하여 서울에 월성위궁과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일대를 사전(賜田)으로 내려주었다. 그리고 충청도 53개 군현의 각 고을에서 한 칸씩 건립비용을 분담케 하여 53칸 집을 짓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추사고택이다. 월성위 타계 후 조카 김이주(金頤柱)를 양자로 삼아 집안을 이었으니 바로 추사의 조부이며, 그는 외할아버지인 영조의 비호로 높은 벼슬을 지내고 네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김노영이

23)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철종실록 > 철종 7년 병진(1856) > 10월 10일(갑오) > 전 참판 김정희의 졸기 : “前參判金正喜卒。正喜，吏判魯敬子，聰明強記，博洽群書，金石圖史，窮微蘊奧，艸楷篆隸，妙悟眞境。時或行其所無事，而人不得以雌黃。與其仲弟命喜，塤簾相和，蔚然爲當世之鴻匠。早歲蜚英，中罹家禍，南竄北謫，備經風霜，用舍行止。世或比之於有宋之蘇軾。”

24) 김한신이 39세 나이로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자 화순옹주는 열흘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고 왕족 최초로 열녀문을 받았다.

추사 양부이고, 넷째 김노경(1766~1837)이 추사 친부로, 모두 대과에 급제하여 출세의 길을 걸었다. 집안의 양명(揚名)과 추사의 자신만만함이 세도정치 상황에서는 하나의 빌미로 작용하여 (b)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부친 김노경을 비판한 내용을 보자.

(c) 요사스런 아들이 항상 반론(反論)을 가지고서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으로 삼으면서도 인륜(人倫)이 허물어지는 두려움을 돌보지 않았었고, 사나운 조카가 권세를 독차지하여 호기를 부리는 것이 남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계획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惡)을 구제하는 데로 돌아가기를 깨닫지 못하니, 동조(同朝)에서의 수치와 여론에서의 타매(唾罵)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sup>25)</sup>

순조 당시 김노경을 탄핵하는 내용을 보면[(C)], ‘요사스런 아들’, ‘항상 반론을 가지고서’라는 반감어린 용어로 추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철종 당시 “양사에서 김정희와 그 형제들을 절도 안치할 것을 청하다[兩司畧以爲]”라는 상소에서도 추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혹하다.

대개 그는 천성이 간독(奸毒)하고 마음 씀이 빼뒀어졌는데 약간의 재예(才藝)가 있었으나 한결같이 (d) 정도(正道)를 등지고 상도(常道)를 어지럽혔으며, 억측(臆測)하는 데 공교했으나 나라를 흥하게 하고 집에 화를 끼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sup>26)</sup>

철종 당시 대왕대비인 김조순의 딸로서 순조의 비가 된 순원왕후(純元王后)로, 그녀가 낳은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철종을 왕으로 삼아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극치에 달했던 시기로, 경주김씨 김관주의 탄압에 앞장섰던 영안부원군 김조순 이후 추사 집안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때였다. 귀역(鬼蜮, 음흉한 사람을 비유) 심지어 와주(窩主, 범죄자의 우두머리)라고까지 표현하였으니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25) 『조선왕조실록』 純祖 31卷, 30年(1830 庚寅/淸 道光(道光) 10年) 8月 27日(壬子), <副司果金遇明疏略曰> : “而妖子之常持反論, 巧作涉世之良方, 而不顧敦倫之畏, 悍姪之席勢使氣, 認爲魯人之愚計, 而莫覺濟惡之歸, 同朝之差恥, 輿論之唾罵, 去而益甚.

26) 哲宗實錄 二年(1851年) > 二年 七月 > 哲宗 2年 7月 21日(乙巳) : “蓋其賦性奸毒, 宅心回曲, 薄有才藝, 一是背經而亂常, 工於揣摩, 不出兇國而禍家. 世濟其惡, 是父是子, 陰結匪類, 如鬼如蜮, 爲世不齒, 亦已久矣.”

는 어렵지만 그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알만하다. 이에 대한 비답으로 “그런 논단은 너무 과중하여 윤택하지 않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sup>27)</sup>고 한 것을 보면 타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내용을 보면 추사가 당시 일반적인 유학자들의 행하는 보편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출한 면을 지닌, 개성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추사가 보여준 재능과 자신감의 표출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추사의 개성적 기질 특성을 ‘괴(怪)’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배 길에서 만난 전주의 창암 이삼만에 대한 행동과 초의선사가 머물던 대운사의 원교 이광사의 글씨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괴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sup>28)</sup>

### 3. 제주 유배 : 추사체의 전변(轉變)

추사의 제주 유배는 그의 나이 55세인 9월에 시작하여 64세 1월 서울에 돌아오기까지 9년 정도이다. 그의 유배는 집안 배경과 추사가 지닌 개성, 즉 괴(怪)의 특성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안동김씨의 정치적 공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추사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38세에 규장각 대교, 42세에 예조참의, 44세에 효명세자 시강원 보덕을 역임했다. 41세에 충청우도 암행어사 시절 봉고파직 시킨 사람이 김우명으로, 그 집안인 안동김씨는 세도정치를 업고 김노경과 추사(동부승지, 45세)를 탄핵하였다. 당시 윤상도가 호조판서 박종훈과 전 유수 신위 등을 탄핵했다 추자도로 귀양 가는 ‘윤상도 옥사 사건’이 있었는데 모함으로 판명되어 묻혔다. 그러나 대사헌 김양순과 대사간 안광직은, 김노경이 김로에게 아부하고 왕세자 가례 때 국혼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하였고 이에 삼사의 신하 14명이 다시 탄핵하고 삼정승(三政丞)과 삼사(三司)가 김노경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왕이 65세인 김노경을 고금도(完道)에 위리안치 시켰으며, 추사는 벼슬에서 물러나 부친을 찾아뵈었다. 추사는 47세에 두 번이나 임금의 행차 앞에서 팽과리를 두드리며 부친의 무죄를 호소하는 ‘격쟁(擊錚)’을 시도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야 해

27) 哲宗實錄 二年(1851年) > 二年 七月 > 哲宗 2年 7月 21日(乙巳) : “批曰. 金正喜兄弟事, 若是論斷, 殊涉過中, 并不允. 未段三漢事, 如渠卑微, 何必如是張皇乎. 勿煩.”

28) 장승희, 「괴(怪)와 졸(拙)로 본 추사 김정희의 철학적 인간학」, 『유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151쪽.

배되었고, 그 2년 뒤 판의금부사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고 추사 52세에 부친은 72세로 서거하였다.

추사 집안에 대한 탄핵은 20여년 고위관직을 지낸 아버지와 추사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 추사는 청나라 연경에서 새로운 지적 자극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경험 후 자신감이 가득하였다. 유홍준에 따르면, 귀국 후 추사는 무슨 논거를 댈 때면 “내가 연경의 석목서루에서 이 진본을 보았는데 그 진본에 의하면 이렇지 않았다.”는 등 혼자만의 경험과 감동으로 재단하고 비평하였다 한다. 그런 오만과 편견과 치기가 본인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간혹 그것이 심하여 미움도 받았다고 한다.<sup>29)</sup> 문제는 추사가 동지부사로 임명받아 연경행이 예정되어 있던 해에(55세), 김우명과 김홍근이 죽은 김노경을 공격하며 윤상도 옥사를 재조사 할 것을 상소하자, 대리청정 하던 대왕대비는 추사와 아우 명희의 관직을 삭탈하고 죽은 김노경의 관직까지 추탈하였다. 다행히 우의정이던 벗 조인영의 상소로 죽음을 면하였지만 결국 추사는 제주로 위리안치 되었다.

유배 이전 추사는 자신의 능력과 기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를 만들어갔다. 눈치 볼 것이 없었던 환경에서 추사체의 개성은 그의 삶의 여정과도 맞닿아 있었다. 유홍준은 추사체가 추사 중년에 자신의 모든 서체에 하나의 틀을 갖추고 제주도 유배생활에서 한 차원 높여 무궁한 변화를 얻음으로써<sup>30)</sup>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는 “각이 진 글자 구성에 힘이 있고, 획의 굵기에 강약이 강하게 드러난” 글씨를 추사체의 특징이라고 보고, 이른바 추사체가 제주 유배 6년째인 회갑 시절의 편지글에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sup>31)</sup>

두 번의 임계국면을 겪으면서 추사는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만의 학문과 예술,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연경 체험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유로운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괴(怪)의 경험이었다면, 두 번째 임계국면인 제주 유배는 그런 개성과 자신감을 다듬어 겸손과 줄(拙)로 승화시켜 추사체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9) 유홍준, 앞의 책, 2006, 60쪽.

30) 유홍준, 앞의 책, 2002a, 294쪽.

31) 유홍준, 앞의 책, 2002b, 424-425쪽.

### Ⅲ. 추사의 제주생활에 나타난 제주 인식

추사의 유배생활은 제주 9년 북청 1년, 모두 10년이다. 55세( 1840년 9월 2일)에 위리안치 명을 받아 전주, 남원, 나주, 해남, 완도를 거쳐 배를 타고 제주 화북에 도착하고 이어서 80리 떨어진 대정현(10월 2일)에 도착하였다. 의금부 관리 금오랑과 하인 봉이가 한 달 넘게 유배 길을 동행한다. 완도에서 해 뜰 때 출발하여 풍랑이 거세어 석양 무렵에 당도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동생 명희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이렇게 빨리 도달한 것은 61일 동안 보기 드문 일로 모두 배멀미에 시달렸지만 나는 뱃머리에서 죄인으로서 쫓쫓이 버티었다.”라고 자세히 묘사하였다.<sup>32)</sup> 화북진에서 하루 유숙하고 다음 날 대정으로 출발하였는데, 대정에 도착해서는 군교(軍校) 송계순의 집에 머물렀다. 위리안치의 이동제한으로 인한 한계와 제주 풍토에의 적응 문제, 부적응으로 인한 심신의 고달픔으로 당시는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시울타리를 둘러치는 일은 이 가옥 터의 모양에 따라서 하였는데, 마당과 뜨락 사이에 또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할 수가 있으니, 거처하는 곳은 내 분수에 지나치다 하겠네. (...) 이밖에 잡다한 일들이야 설령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찌 감내할 방도가 없겠는가?<sup>33)</sup>

추사의 유형(流刑)은 집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거동해야 하는 극단적 형태이다. 처음 가옥의 모양을 따라 가시울타리 치는 작업을 하였는데 집 안에서라도 거동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그나마 만족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인다. 유배 초기 나름 건디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은 건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음이 그의 편지마다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근래에 와서 눈이 어른어른한 것이 더욱 가중된 데다, 밥 못 먹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밥상을 대할 적마다 구역질만 나므로 목구멍에 넘기는 것이 전혀 없는

32)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 命喜> 내용 참고.

33)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 命喜> : “籬園遵家形址爲之, 庭階之間, 亦可以行飯, 所處則於分過矣. (...) 外此瑣細, 設有不便, 豈無地忍之道也.”

지라, 이 때문에 신기(神氣) 또한 따라서 몹시 쇠진하여 수습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글을 경영한 지 오랜만에 이제야 비로소 붓을 들었으나 또한 계속해서 써나갈 수가 없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또한 그대로 내버려둘 뿐이로세. 비록 의약(醫藥)으로 다스리고자 하나 또한 약재료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sup>34)</sup>

당시 추사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적응이 쉽지 않았다. 왕족 자체로 물질적·정신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추사의 가세는 편지에 나오는 많은 종의 이름만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제주에 같이 내려간 봉(鳳)이를 비롯하여 안(安)이, 갑금(甲金)이, 용손(龍孫)이, 철(鐵)이, 양득(景得)이, 성노(聖奴), 단(段)이, 양예, 차예, 가예, 팔룡이, 용손이 등이 번갈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편지와 음식, 물품과 서책을 배달하였다. 풍토가 다른 제주생활은 물갈이로 인해 기운이 빠져 편지쓰기도 힘들었던 듯하다. 큰 동생 명희와 막내 상희와의 우애를 그리워하는 편지 속에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절절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설창(舌瘡, 혀에 난 종기)과 비식(鼻癰, 코 속에 난 혹)이 아직도 이렇게 아파 5~6개월 이어지고 있네. 이게 비록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토록 지루하게 고통을 주는 병이 있단 말인가. 음식물은 점점 더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삼킨 것은 또 체해서 소화가 되지 않으니, 실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네. 만일 실낱같은 목숨이 구차하게 연명된다면 소식이나 서로 전할 뿐이니, 또 어찌 하겠는가. 어깨통증[臂疼]과 종기[痔症]가 또 극성을 부리니, 도대체 무슨 업보로 이처럼 내게만 치우치게 고통을 준단 말인가.<sup>35)</sup>

지금도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55세인 추사가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대정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다. 게다가 대정현은 한라산 남쪽이어서 한라산을 넘지 못

34)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二)> : “吾比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証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者. 神氣隨以澌頓, 收拾不得. 此書經營多日, 今始染毫, 亦不能接續寫就. 不知其何緣如此, 亦惟任之. 雖欲醫藥, 又無藥料, 亦奈何.”

35) 『阮堂全集』 卷二 <書牘, 與舍仲(三)> : “吾舌瘡鼻癰, 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係醫藥之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 食物轉難燕下, 下者又滯隔不消, 實不知何以爲好. 若一縷苟延, 則與之消息而已, 亦奈何, 臂疼與痔症, 又一以并肆, 此是何報而偏苦若此耶.”

한 습기 많은 공기가 머물러 장마철에는 벽에 물기가 뚝뚝 떨어질 정도이다.

이 죄인은 3개월 동안이나 풍토병[瘴氣]으로 인하여 학질(瘡疾)을 앓으면서도 이를 다스릴 수가 없어 한열(寒熱)이 침학(侵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럭저럭 80여 일을 경과하였더니, 원기(元氣)가 점차 손상되어 남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식보(食補)나 약보(藥補)는 모두 논할 것도 아니거니와, 우선 몸에 살이 온통 빠져버려서 자리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궁둥이에 부스럼이 생길 지경이니, 이렇고도 어떻게 오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벌레와 뱀까지 따라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반 자[半尺]나 되는 지네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침석(枕席)을 횡행하는가 하면, 처마에서는 새끼 가진 참새가 날마다 뱀을 경계하여 지저귀곤 하는데, 이는 모두 북쪽 육지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입니다.<sup>36)</sup>

추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묘사하면서도 생활의 불편함, 음식과 약재의 부족함, 풍토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물질의 결핍, 특히 의식주의 결핍은 쉽지 않은 고난이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된 삶을 호소하는 것이 편지마다 보인다.

이 죄인은 여기서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 바다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고 세월은 급급히 흐르기만 하니, 비록 면목이 있을들 인간의 면목이겠습니까. (...) 몸뚱이의 피와 살은 남김없이 말라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으니, 비록 등골뼈를 일으켜 세워 조물주와 서로 버티어 유한한 인간으로 무한한 조물주를 따르려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sup>37)</sup>

이 천한 사람의 병은 요즘에 또 발작했다 그쳤다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친 때이기는 하나 그 그친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양 병이 곁에서 쑥 내밀고 나오는 것이 마치 죽순[筍]이 섬돌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어볼 만한 의원이 없으니 약은 또 어디서 의논하겠습니까. 게다가 겹하여 여름 내내 우마(牛馬)의 도살을 금하였으므로, 마맥(麻麥)과 복령(茯苓) 등 채식만을 마치 계을을 지키듯이 먹어 왔는데,

36)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五)> : “累狀瘴瘡三朔, 無以醫治, 任其寒熱之凌虐, 任冉過八餘日, 眞元漸敗無餘. 食補藥補, 俱非可論, 肌肉盡脫, 不能坐穩床茲, 屢欲生瘡, 如是而安能久乎. 重之蟲虺從以惱之. 半尺之蜈蚣, 掌大之蜘蛛, 橫行枕席, 簷際乳雀, 日以警蛇, 皆北地所未見.”

37)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六)> : “累收居然三載于茲. 海天茫茫, 歲月騰騰, 視然人面乎哉. (...) 血肉之軀, 漸削無餘, 日異而時殊, 雖欲豎起脊梁, 與造物者相支柱, 而以有涯隨無涯, 其可得乎.”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천(水泉)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에는 빗물, 겨울에는 눈물[雪]로 밥 짓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특별히 가물지 않았는데도 우물이 멀리 5리 밖에 있으므로 물을 길어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일 충암(沖庵)의 판서정(判書井)의 고사(故事)<sup>38)</sup>와 같이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다면 또한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이 위리(圍籬) 밑에 어디서 샘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읍(邑)이 들 가운데 위치하여 토성(土性)이 더욱 건조하니, 설령 천맥(泉脈)이 있다 하더라도 샘물의 품질이 반드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읍 밑에 우물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는 또 3백 60개 고을 가운데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sup>39)</sup>

게다가 이토록 심한 추위와 눈은 북녘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처마는 얇고 다 흠벽[單壁]이어서 바로 얼음집이요 눈구덩이로, 겹쳐한 점 햇빛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머리를 감히 이불 밖으로 쳐들지 못하고 손도 감히 토시[袖套] 속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벼루와 붓이 꽁꽁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는 헤아릴 겨를이 없습니다.<sup>40)</sup>

근래에는 우물하여 근심 고통이 심하고 위급하고 절박함으로 인해 초췌해지며, 이미 억눌린 자리는 활발하지 못한데, 또 오래 묵은 질병은 떠나지도 않아 겁나고 두려운 심사(心思)를 수렴(收檢)할 길이 없고, 손목은 느슨하게 풀리어 굽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고 풍운(風輪)을 타고 도는 것 같아 승묵(繩墨)으로 바로잡으려 하면 더욱 어긋나고, 법도로 나가려 하면 더욱 어그러집니다.<sup>41)</sup>

38) 충암은 김정(金淨)의 형조판서로 있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당하여 제주(濟州)에 위리안치 되었을 적에 자신의 적려(謫廬) 곁에다 우물 하나를 파서 얻었는데, 물이 매우 맑고 시원했으므로, 후인들이 그를 사모하여 이 우물을 ‘판서정(判書井)’이라 이름 한 데서 온 말이다.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

39)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八)> : “賤恙近又更作更止, 現是止時, 止不可恃. 每旁闕如筍穿于階, 無醫可問, 藥又何論. 重之全夏斷屠, 麻麥伏令, 如持戒茹素. 尚能支到今日, 非始料所及, 水果果不佳, 夏雨冬雪之炊, 亦或有之. 今夏特不早耳, 并爲五里之遠, 汲運極難. 若鑿而得之. 如沖庵判書井故事, 亦幸甚, 顧此籬底, 何處覩泉耶. 且邑在野中, 土性尤爲浮燥, 設有泉脉, 品必不好. 邑底所以無一井, 此又三百六十之所未聞.”

40)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二十一)> : “加之甚寒甚雪, 北之所未經. 所居簷淺壁單, 卽一水窠雪窖, 重以一片陽氣不及, 頭不敢舉被窩外, 手不敢出袖套中. 硯斲筆凍, 又不暇計擬.”

4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三十)> : “邇還以來, 鬱紆而憂毒, 危迫而焦額, 旣壓次之不揚, 又沉絀之不發, 心思怔, 無由收檢, 手腕懈緩, 莫得卷曲. 如騰空界, 如轉風輪, 拉繩墨而愈錯, 就矩矱而益舛.”



추사의 편지에서 음식과 추위, 질병과 외로움으로 겪은 고난, 궁핍한 생활과 질병에 대한 절절한 사연들은 귀공자의 투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IV. 추사의 제주 인식, 변화의 계기와 의미

##### 1.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추위와 질병, 음식과 물로 인한 어려움, 외로움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처지 등 힘든 유배지의 삶을 견디기 위해 추사는 편지와 글씨에서 위안을 얻었고 자신의 처지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족친지와 지인들과의 편지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권돈인과의 편지와 그의 물질적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권돈인은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로 추사보다 3살 위의 봉우(朋友)로, 추사와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여서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한 신세한탄을 하곤 했다. 꾸준한 편지 왕래는 추사의 심사를 달래주었는데, 특히 그가 보낸 인삼은 추사의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인삼(人蔘)과 연초(煙草)를 계속 많이 내려주어 높으신 비호에 의탁하여 인삼은 먹어서 원기(元氣)를 보충하고 연초는 피위 장기(瘴氣)를 막게 되었으니, 더없이 머리 들어 사례하는 바입니다.<sup>42)</sup>

보내주신 인삼에 대해서는 주는 대로 사양치 않고 받아서 마치 나에게 분디 있는 것처럼 복용하고 있으니, 이 어떤 공덕입니까. 만일 지난번에 주신 것으로 바짝 마른 창자를 적혀주지 않았더라면 이 실낱같은 완둔한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것이 떨어졌는데, 또 계속하여 대주시는 성대한 은덕으로 끊임없이 감로수(甘露水)를 정수리에 부어주심을 입으니, 우러러 감사할 뿐입니다.<sup>43)</sup>

42)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六)> : “況三種鼻烟, 連蒙便蕃之貺, 仰託崇庇, 服之以補元, 嗅之以禦瘴, 到底翹謝.”

43)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五)> : “下送靈糧, 有頒不辭, 若固有之, 是何功德. 如非前貺之沾稿潤乾, 無以延此一縷之頑. 近頗罄乏, 又蒙繼廩之盛, 置之不竭之原, 甘露灌頂, 頂謝而已.”

둘째, 추사는 사람 좋아하는 기질을 적극 활용하였고, 제자와 지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제자인 허련과 이상적은 그의 옆에서 서책을 구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허련은 유배 다음 해 추사를 찾아와 제주목사 이용현의 막하로 들어가 추사의 유배처를 왕래하면서 그를 도와주었고, 이상적은 계복(桂復)의 『만학집(晩學集)』, 윤경(惲敬)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槁)』,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 120권을 북경에서 구해 보내줄 정도여서 추사는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주기도 하였다. 초의선사는 1843년 늦은 봄에 와서 6개월 정도 머물다 9월 경 육지로 돌아갔다. 물론 그의 가족인 양자 상무(商懋)와 서자 상우도 다녀갔다. 또한 백파(白坡) 선사와의 편지를 통한 선 논쟁에서는 자신의 불교지식을 마음껏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교류는 추사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의 외로움과 곤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책을 읽고 학문적 탐구열을 불태우면서도 예술적 기질을 한껏 발휘하였다. 유배 오는 도중 권돈인에게 「모질도(耄耄圖)」를 그려 보내고 초의가 머물던 해남 대흥사에서는 「무량수각(無量壽閣)」현판을 썼으며, 유배지에서 보낸 그의 편지글들은 추사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다. 또한 「화암사 상량문」, 「무량수각」, 「시경류」 등 편액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심지어 임금은 허련에서 추사의 글씨를 가지고 상경 입시하라고 할 정도로 그의 글씨는 당대에도 유명하였던 듯하다.

넷째, 제주 자연, 특히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제주 자연에 대한 추사의 인식은 수선화에 잘 드러난다. 부친이 평안감사일 때 추사는 복암(茯菴) 이기양(李基讓)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 올 때 부친에게 선물로 준 수선화 한 그루를 고려자기 화분에 심어 유배지에 있던 다산 정약용(당시 57세)에게 보냈다. 다산은 “늦가을에 벗 김정희가 향각에서 수선화 한 그루를 부쳐 왔는데, 그 화분은 고려 청자였다.”라고 부제를 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신선의 풍채나 도사의 골격 같은 수선화가, 30년을 지나서 나의 집에 이르렀다. / 복암 이기양이 옛날 사신 길에 가지고 왔었는데, 추사가 이제 대동강가 아문으로 옮겼다네. / 외딴 마을 동떨어진 골짜기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서,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기에 서로 다투어 떠들썩하다 / 어린 손자는 먼저 익센 부추 잎에 비유하더

니, 어린 여종은 도리어 일찍 짝든 마늘 짝이라며 놀란다. / 흰 꽃과 푸른 잎 서로 마주 서 있으니, 옥 같은 골격 향그런 살결에서 향내가 절로 풍기는데 / 맑은 물 한 사발과 바둑알 두어 개라, 티끌조차 섞이지 않았으니 무엇을 마시는지 / 시인의 본초강목과 부옹의 시구에서, 너무나 더럽히어 글을 보니 울고 싶으라 / 진흙에 뿌리내린 걸 더러운 데 처했다 하고, 건땅에 꽃 피운 걸 습한 곳 좋아한다고 한다 / 이제야 알겠노라 대은은 때로 저자에 숨어도, 검은 물도 들지 않고 닳지도 않는다는 것을.<sup>44)</sup>

다산의 시에서 추사에 대한 고마움, 수선화의 희귀성,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볼 수 있다. 추사는 다산의 둘째 아들인 학유와 동갑으로 다산 집안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다산을 존경하는 마음에 수선화를 고려자기에 심어 보낸 것이다. 다산과 추사는 유형(流刑)은 같지만 지역적 한계에만 머물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다산에 비해, 추사는 거동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불가능하였다. 한라산을 올라간 것도 유배 후 몇 년 제주병사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다산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비해 추사가 척독(尺牘) 외에 글씨만 남긴 이유를 알 만하다. 유배 초기 수선화에 대한 첫 인상은 제주 자연에 대한 추사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수선화는 과연 천하에 큰 구경거리입니다. 절강성 이남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는 촌 동네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서도 이 수선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화품(花品)이 대단히 커서 한 가지에 많게는 10여 송이에 꽃받침이 8~9개, 5~6개에 이릅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께부터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토착민들은 수선화가 귀한 줄 몰라서 소와 말에게 먹이고 함부로 짓밟아버립니다. 또한 수선화가 보리밭에 잡초처럼 많이 나기 때문에 시골의 장정이나 아이들이 보자마자 호미로 파내어 버립니다. 파내고 파내도 다시 나기 때문에 이를 원수 보듯 하고 있으니, 수선화가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이와 같습니다.<sup>45)</sup>

44) 『茶山詩文集』 제6권, <詩, 松坡酬酢, 秋晚金友喜香閣, 寄水仙花一本, 其盆高麗古器也> : “仙風道骨水仙花, 三十年過到我家. 荻老曾携使車至, 秋史今移淚水街. 窮村絕峽少所見, 得未曾有爭喧譁. 穉孫初擬薤動拔, 小婢翻驚蒜早芽. 縞衣青相對立, 玉骨香肌猶自浥. 清水一盃菰數枚, 微塵不雜何所吸. 時珍本艸涪翁詩, 厚誣直欲臨書泣. 糞泥托根云處汚, 肥土開花稱好濕. 始知大隱時隱市, 猶自緇磷不相入.”

45) 『阮堂全集』 제3권, <書牘, 與權彝齋(五)> : “水仙花, 果是天下大觀. 江浙以南, 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花品絕大, 一朵多至十數花, 八九萼五六萼, 無不皆然. 其開在正晦二初, 至於三月, 山野田壟之際, 漫漫如白雲, 浩浩如白

당시 육지에서 보기 드물었던 수선화를 지천에서 볼 수 있었으니 수선화에 대한 인상이 어찌 강렬하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은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면서 점차 자신의 유배생활에서도 의미를 찾았던 듯하다. 추사가 수선화를 보고 시를 짓곤 했는데, 하나는 눈 내린 밤에 천엽으로 이루어진 제주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은 시도 있다. 감상해보자.

푸른 하늘 한바다에 낮같이 확 풀리니/ 선(仙)이란 끝내는 인색한 게 아니로세 /  
호미 끝에 버려진 심상한 이 물건을 / 창 밝고 채 초췌한 그 사이에 공양하네<sup>46)</sup>

술 푸르고 등 파란 낚아 빠진 떠 집에 / 천엽의 수선화 영롱한 옥이로세 / 심상한  
저 설의도 관계가 많이 되니 / 시경은 공몽해라 화경도 마찬가지<sup>47)</sup>

## 2. 주역 공부를 통한 자기 이해와 수용

추사의 제주 유배에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역이었다. 주역을 깊이 공부한 내용은 권돈인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난다. 주역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人道)를 통하여 천도(天道)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주역이란 것은 허물을 고치는 글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비록 비괘(否卦)·박괘(剝卦)·곤괘(困卦)·건괘(蹇卦)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변통할 수 없는 도리는 없기 때문에, 궁하면 통할 수가 있고, 죽으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지러우면 다스려질 수가 있고,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일찍이 시운(時運)을 어찌할 수 없다거나 기질(氣質)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데에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길이 비색[否]한 때만 있지 않고, 또 길이 형통[泰]한 때만 있

雪. 累居之門東門西, 無不皆然. 顧茲坎窞憔悴, 何可及此. 若閉眼則已, 開眼則便滿眼而來, 何以遮眼截住耶. 土人則不知貴焉, 牛馬食齧, 又從以踐踏之, 又其多生於麥田之故, 村丁里重, 一以鋤去. 鋤而猶生之故, 又仇視之, 物之不得其所, 有如是矣.”

46) 『阮堂全集』 제10권, <詩,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 田畝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慳, 鋤頭棄擲尋常物, 供養窓明几淨間.”

47) 『阮堂全集』 제10권, <詩, 雪夜偶吟> : “酒綠燈青老屋中. 水仙花發玉玲瓏, 尋常雪意多關涉, 詩境空濛畫境同.”

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색한 운수를 형통한 운수로 돌리고, 아낌없이 허물을 고치며,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방지하고, 편안한 때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평균하게 조제(調劑)시키는 것이니, 『대학(大學)』의 치평(治平 치국·평천하)과 『중용(中庸)』의 중화(中和)가 모두 이것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것입니다.<sup>48)</sup>

추사는 주역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논리와 허물을 고치는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모든 것이 넘치고 지나치면 기울어서 평균을 찾고자 하는데, 그에 의하면 평균이란 “물마다 각각 제자리를 얻은 것”<sup>49)</sup>이다. 추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위로하며 주역의 원리에서 해배(解配)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 자신의 궁한 처지가 반드시 균형을 찾을 것이고 통(通)하는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추사는 제주에서의 힘든 삶을 토로하면서도 점차 제주 아름다움과 풍물의 기이함에 눈을 뜨고 새롭게 느끼기 시작한다.

거미와 지네는 예전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파리도 무척 많아서 아침에 갈아입은 흰옷이 저녁이면 마치 검은 물을 뿜어놓은 것처럼 까맣게 되며, 밤이 되면 벼룩과 모기가 서로 득실거리어서 잠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또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으나 혹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한 마치 먼지처럼 자잘한 벌레들이 있어 날카로운 독침이 가시와도 같고 벌침과도 같은데, 이것들이 베개와 요[枕褥] 사이에 서로 득실거리면서 내 몸과 피와 살을 저들의 생계로 삼고 있습니다. …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한결 같이 하는 대로 맡겨둘 뿐입니다.<sup>50)</sup>

이곳에는 감로수(甘露樹)가 있어 나무의 굴기는 겨우 한 줌(一握) 혹은 두 세줌(二三握) 쯤 되기도 하는데, 그 밑둥을 자르면 나무의 즙이 폭포처럼 솟아 나와서 한 나무에 물을 큰 병으로 가득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유천(乳泉)과 같고 단맛은 마치 상품(上品)의 꿀(石蜜)과 같아 맑고 차가우면서도 향기가 있어, 다른

48)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 敦仁> : “是以易者, 改過之書也. 雖否剝困蹇, 元無不可變通之道, 窮可以通, 死可以生, 亂可以治, 絕可以續, 曾不以諉之於時運之不可爲, 氣質之不可化. 而蓋未有長否之時, 又未有長泰之時, 是以回否反泰, 改過不吝, 思患豫防, 安不忘危, 使之平均調劑. 大學之治平, 中庸之中和, 皆是相爲表裏.”

49)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 敦仁> : “平均者, 物物各得其所也. 不得其所, 所以不平均也.”

50) 『阮堂全集』卷3, <書牘, 與權彝齋(九)> : “蜘蛛蜈蚣, 依舊作苦, 且蠅甚, 朝澣之衣, 夕而如噴鴉, 夜則蚤蚊相仍, 無由成眠. 又不知何樣小蟲, 或赤或黑, 細若微塵, 利侔棘心, 銛比鋒尖, 互發交作於枕褥之間, 血肉之軀, 爲渠家計. … 亦復奈何. 一以任之.”

꿀의 달기가 모두 이만 못하니, 참으로 기이한 산품(產品)이라 하겠습니다. 선가(仙家)의 옥장, 옥액(瓊漿·玉液)이라는 것도 아마 이보다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이 나무는 깊은 산에 있는데, 간혹 만날 때가 있을 뿐, 많이 볼 수도 없고 이곳 사람들 또한 알지 못합니다.”<sup>51)</sup>

벌레들 때문에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감수하기로 이전과 변화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로수가 고로쇠 혹은 하수오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주 자연을 묘사한 추사의 표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역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한 결과인 듯하다.

궁하면 통할 수가 있고, 죽으면 살 수가 있고, 어지러우면 다스려질 수가 있고,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은 쇠세(衰世)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한 것입니다.<sup>52)</sup>

추사는 주역의 변화원리에 자신의 처지를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위로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도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것이 바로 소식(消息)의 지극한 이치인데, 나의 경우는 궁함이 아직 궁함이 다 되지 못하고 변함이 아직 변함이 다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또 소식하는 한 가지 이치가 지금은 또 증험이 없어, 기수(氣數)의 주장(主張)이 한결 같이 어긋나는 데 맡겨져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sup>53)</sup>라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였다.

추사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승천된 종질(從姪) 상일을 축하하면서는 “생활의 풍검(豐儉)에 대해서는 세속의 생활 방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없었던 때를 가지고 생각하면 여유 있는 것이 기쁘겠으나, 서생(書生)

51)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十)> : “此中有甘露樹, 樹身大座一握, 或二三握, 截其本則樹汁湧如瀑泉. 一本可得水一大瓶, 水如乳泉, 味甘如石蜜之上品. 清冽有香, 他蜜之醴, 皆不如也, 儘奇品異產矣, 仙家之瓊漿玉液, 恐不多於是. 樹在深山, 或有遇之而不多見, 此中人亦不知也.”

52)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七)> : “是以窮可以通. 死可以生, 亂可以治, 絕可以續, 故曰易爲衰世而作.”

53) 『阮堂全集』 卷三, <書牘, 與權彝齋(八七)> : “窮則變, 變則通, 卽消息之至理, 而窮有未窮, 變有未變耶. 抑復消息一理, 今且無驗, 氣數主張, 一任其乖.”

에게는 매양 분수에 넘침을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검박함도 또한 기쁜 것이다. 「대역(大易)」에서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집에서 먹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기쁜 대로 순리대로 지낸다면 어디 간들 여유작작하지 않겠느냐.”<sup>54)</sup>라고 하였다. 주역 대축괘(大畜卦)에 “크게 기쁨은 곧은 것이 이로우니,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大畜利貞 不家食吉]”의 내용인데, 집에서 먹지 않고 베풀하여 조정(朝廷)에서 녹봉을 받아먹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베풀이 오른 것을 축하하면서도 자족(自足)하는 마음과 절약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조언한 것이다. 채종손(再從孫) 태제(台濟)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중(中)에 대하여, “주역의 384효, 64괘도 서로 끊임없이 왕래하고 반복하여 오르내려서 중을 향해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중용(中庸)이 주역과 서로 통하는 것”<sup>55)</sup>이라고 하였다. 추사가 말한 중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내가 다니고 머물고 앉고 서고하는 곳이 모두가 중이다. 그래서 이 중이 아니면 다닐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것이니, 굳이 따로 할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곧 다니고 머물고 앉고 서고하면서도 이것이 곧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른바. 당나귀를 타고서 당나귀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자신에게 반성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함에 유여하게 되는 것이니 지나치게 구하는 것도 중은 아니다.<sup>56)</sup>

이 말은 추사가 태제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중(中)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리라.

54) 『阮堂全集』 卷2, <書牘, 與從姪 商一> : “至於腴薄之計, 固不能免俗商裁. 若以未有此之時思之, 豐實可喜, 每有書生濫分之戒, 薄亦可喜. 大易不家食之吉, 非家食可比, 隨喜隨順, 安往而不裕如也.”

55) 『阮堂全集』 卷2, <書牘, 與再從孫(三)> : “易之三百八十四爻, 六十四卦. 往來憧憧, 反復上下, 無非向中去, 所以中庸與易通耳.”

56) 『阮堂全集』 卷3, <書牘, 與權彝齋(十)> : “今汝行住坐立處皆中. 而非中無以行無以住無以坐無以立, 不別別尋一逕. 今乃行住坐立, 而不知是中者, 是所謂騎驢覓驢耳. 此非一二言說可了, 惟回身返求, 是歸求有餘者. 且過求非中.”

### 3. 불교 신앙을 통한 달관의 경지

추사에게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그의 사상 형성이 중요한 토대이자 신앙의 역할을 하였다. 불교는 신앙으로, 예술로서, 사상으로 유배시 큰 힘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sup>57)</sup>

첫째, 추사 집안에 원당(願堂) 사찰인 오석산(烏石山) 화암사(華巖寺)를 두고 있었다는 데서 신앙으로서 불교 인연을 알 수 있다. 33세 때 해인사 대적광전 중수에 시주하고 상량문을 써주고, 제주 유배 시절 화암사 중건시 2종의 현판을 써서 집으로 보내는 등 인연이 생길 때마다 사찰에 현판과 상량문을 써 보내주었다. 초의 선사를 비롯하여 스님들과도 교류가 많았는데, 제주 유배시절 6개월 및 이후 강상(江上)에서 2년을 함께 한 초의선사와의 관계는 단순히 벗을 넘어 학문적 동지였던 듯싶다. 40여 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면, 안경을 보내고 효험을 보았는지 묻거나 차를 보내주는 그런 일상적 교류를 넘어선다. 추사에게 초의선사는 불교적 사유를 공유하는 봉우이자 불교에 대한 탐구를 검증하는 사우(師友)였던 것이다. 만년의 추사는 더욱 불도(佛道)에 귀의하여 일흔 살에는 봉은사에 기거하면서 발우공양하고 자화참회(刺火懺悔)하며 살았고, 과지초당(瓜地草堂)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불자로서 생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은 세상을 떠나기 삼일 전에 쓴 것으로 그의 마지막 불심이 담겨 있다.

둘째, 예술로서의 불교를 보면 180여 개의 별호를 자유자재로 짓고 활용한 데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드러난다. 그 중 불교와의 인연을 나타낸 이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불노(佛奴) 등이 있다. 불심이 깊었던 추사는 원찰인 화암사 현판 뿐만 아니라 혼허지조(混虛智照) 스님의 부탁으로 경북 영천 은해사(銀海寺)의 현판들, 즉 일주문의 「은해사」, 「대웅전」, 「보화루(寶華樓)」, 「불광(佛光)」, 요사채의 「시흘방장(十笏方丈)」 등을 흔쾌히 써주었으며, 또 스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절집 암자의 현판도 자주 써주었다. 부안 변산의 「소요암(逍遙庵)」, 계룡산 동학사의 「자묘암(慈妙庵)」도 있다.<sup>59)</sup> 추사는 기침, 혈담, 눈병, 소화불량 등 제주에서 잔병치레가 심하

57) 이 부분은 장승희, 앞의 글, 2015, 226-237쪽에서 가져와 수정함.

58) 유홍준, 앞의 책, 2006, 443쪽.

59) 유홍준, 앞의 책, 2002b, 675쪽.



었는데, 소치 허련(小痴 許鍊, 1809~1892)이 그린 「완당선생海天一笠像(阮堂先生海天一笠像)」을 보면, 왼손으로 수염을 어루만지고 오른손으로는 배꼽 근처를 움켜쥐고 연단도인의 몸짓을 하고 있다. 평소 손에 염주를 쥐고 만지작거리며 굴렀다고 하는데, 일종의 건강유지 방법이었던 듯하다. 추사의 불교적 사유는 그림에도 잘 드러나는데,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난을 치면서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사의 염원을 담고 있다.

난화를 치지 않은지 스무 해 / 우연히 본성을 흰히 그려 냈구나 / 문 닫고 찾기도  
찾은 곳 /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라네<sup>60)</sup>

재가불자로서 유마거사의 삶을 본받고자 하였던 그는 유마경의 가르침,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과 “지혜를 어머니로 하고 방편(方便)을 아버지로 한다.”는 경전의 맥락을 그의 삶에서 꾸준히 추구하며 살았다. 그것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고 그 기쁨을 “제란(題蘭)”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마거사를 자처하였던 추사는 글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 대립과 차별을 버리고 분별 의식과 집착을 벗어난 불이(不二)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비록 세속에서이지만 유마거사처럼 이 삶 속에서의 해탈을 추구하였고 번뇌와 해탈, 중생과 붓다의 불이적 사유야말로 추사가 추구했던 바인 것이다.

셋째, 사상으로서의 불교는 제주 유배 4년째(58세), 77세의 백파선사와 편지를 통해 벌인 선(禪) 논쟁이 유명한데, 추사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화두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두드러진다. 백파선사는 법명이 공선(巨璇)이고, 전주(全州) 이씨(李氏)로 선조(宣祖)의 부친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10세손이며, 18세 때 연곡화상(蓮谷和尚)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24세 때 당시 화엄종장인 설파상언(雪坡尙彦, 1707~1791)에게 구족계를 받고 화엄경을 배웠다. 26세 백양사 운문암 강사스님이 되었고, 30세 때는 구암사에서 사미계를 설해 율사로서 발을 디디고, 49세 때부터 정읍의 용문동에 들어가 8년간 습정균혜(習定均慧)하였다. 한국 선종의 역사에서 백파선사는 서산휴정(西山休

60) 『阮堂全集』 卷十, <詩, 題蘭> : “不作蘭花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靜)과 그 문하에서 주도해왔던 조선 선문의 체질강화 작업을 착실히 계승한 인물이며,<sup>61)</sup> 그의 『선문수경(禪文手鏡)』은 전통적인 선종 각 종파들의 미묘한 차이를 ‘중도’와 ‘돈오’를 기준으로 종합, 정리한 저술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몰락해가는 선종의 중흥을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sup>62)</sup> 그의 삼종선(三種禪) 논의는 범통이라는 다분히 유교적인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던 임제선의 정통성을 이론적으로 객관화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63)</sup>

논쟁은 백파선사가 지은 『선문수경』이 발단이었는데, 핵심은 의리선, 여래선, 조사선의 구도에서 그것을 임제삼구(臨濟三句)에 배당시키고 선종오가에서 하택종을 의리선에, 법안종과 위양종과 조동종을 여래선에, 운문종과 임제종을 좌선에 배당하고, 운문종과 임제종 가운데 기용(機用)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최상승종은 임제종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추사가 그 주장에 대한 오류를 편지로 보내고, 백파선사가 「13가지로 논증한 답신」을 보냈으며, 다시 추사가 「백파망증15조(白坡妄證十五條)」로 논증한 글을 보낸 것이 핵심이다. 초의선사도 백파선사의 주장을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추사는 화두선을 비판하며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한다. 붓다가 인생과 존재의 본질을 고(苦)라고 선언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무상(無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얻더라도 결국 무아(無我)이므로 집착할 것이 없고, 따라서 삶에서 물질적·세속적인 것을 갈망하기보다 깨달음을 갈망하고 궁극에는 그것도 놓으라는 의미였다. 추사는 유배를 겪으며 삶과 죽음,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의 분별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불이(不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원당사찰을 지니고 있을 만큼 독실한 불자로서 불심(佛心)으로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졸(拙)의 경지에 이르는데, 유마거사의 불이의 경지이자 선(禪)이며 공(空)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61) 박재현, “조선후기 선(禪) 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 『불교학연구』 제7호, 불교학연구회, 2003, 150쪽.

62) 최일범, “백파선사-삼종선 논쟁을 일으킨 종문의 거인”,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민족사, 1990, 379쪽.

63) 박재현, 앞의 논문, 150쪽.

## V. 맺음말

지금까지 추사의 제주인식, 그 변화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인간의 삶에서 경험은 이미 형성된 사유구조와 조응하면서 경험 이전과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다. 고증학과 추사체에서 독자적 경지를 이룬 추사에게 제주유배는 임계국면으로 작용하여 예술과 학문에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질적인 제주의 환경과 문화, 궁핍한 여건을 경험하면서 이전의 도도하고 자부심 많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된다. 주역과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을 놓는’ 중(中)을 깨치게 되고 그 결과 역경을 수용하고 겸허해지면서 졸(拙)의 특성을 지닌 추사체로 변화였다. 개성이 있으면서도 겸손을 갖춘 품격이 생긴 것이다. 또한 육지와 오고간 추사의 편지에서 제주에 대한 소감과 느낌은 당시 제주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추사의 개성적인 삶과 추사체는 오늘날 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성과 맞닿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끼’를 통해 개성과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복제품 같은 인간유형이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인간상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을 키우고자 함이다. 감각주의·물질주의·경쟁주의로 획일화되어가는 자본주의 문명에서 미래사회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앞으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의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고,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일’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sup>64)</sup>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해야 하는 창의적 분야들이다. 그것은 몸으로 이루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과 정서분야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며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역사 속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이다.

64) <http://news.joins.com/article/13925157>, 『중앙일보』(2014.02.18), 「송길영의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 :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검색일: 2015.11.07)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장인(匠人·artisan)이나 예술가가 돼야 하는 세상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참 고 문 헌

### 1. 연구논저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2005.
- 구사회, 「實學과 佛敎의 交涉-秋史 金正喜를 중심으로」, 『불교어문논집』 2, 한국불교어문학회, 1997.
- 구사회, 「추사 김정희의 문학과 불교적 수용」, 『어문연구』 2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
- 김규선, 「새로 발굴된-추사 김정희의 암행보고서」, 『한민족문화연구』 38, 한민족문화학회, 2011.
- 김영두, 「草衣意恂의 禪思想과 茶道精神」, 『보조사상』 26, 보조사상연구원, 2006.
- 김현권, 「秋史 金正喜의 산수화」, 『미술사학연구』 240, 한국미술사학회, 2003.
- 로저 트리그(Roger Trigg), 최용철 역,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자작나무, 1997.
- 류호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 연구」, 『한국불교학』 46, 한국불교학회, 2006.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완당전집 I-III』, 솔, 1996.
- 민중서림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8.
- 박재현, 「조선후기의 선(禪) 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 『불교학연구』 7, 불교학연구회, 2003.
- 박철상, 「추사 김정희 장서(藏書)의 특징」, 『추사의 삶과 교유』(추사박물관 학술총서 1), 추사박물관, 2013.
- 선주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의식과 예술관 연구」, 『서예학연구』 55, 한국서예학회, 2004.
- 심경호, 「추사 김정희의 서독(書牘)에 담긴 사유양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일 고찰」,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 양순필,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연간 고」, 『어문연구』 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0.
- 유홍준, 「추사 김정희」, 『역사비평』 1998년 겨울호(통권 45호), 역사비평사, 1998.
-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 유홍준, 『완당평전 1,2,3』, 학고재, 2002abc.
- 이동국, 「한국 문인화의 원형 탐색미술세계-추사 김정희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를 중심으로」, 『미술세계』 363, 미술세계, 2015.

- 이병기,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 이종찬, 「조선 중후기 儒·佛 詩人의 交涉樣相-東岳과 秋史의 경우」,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 임종욱, 「秋史 金正喜의 佛敎詩 연구」, 『동악어문학』 47, 동악어문학회, 2006.
- 장승희, 「김정희, 불심을 바탕으로 조선문예를 빛낸다」, 『불교평론』 제64호, 불교평론, 2015, 217~238쪽.
- 장승희, 「괴(怪)와拙(拙)로 본 추사 김정희의 철학적 인간학」, 『유학연구』 제3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 139-164쪽.
-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8.
- 정후수, 「추사 김정희와 북경 법원사」, 『한성어문학』 2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5.
-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I)』, 경문사, 1990.
- 최일범, 「백파선사-삼종선 논쟁을 일으킨 종문의 거인」,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0.
-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5.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 Carl Sagan(1977), *The Dragons of Eden : Speculations on The Evolution of Human Intelligence*, 임지원 역, 『에덴의 용』,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 David Christian·Bob Bain(2013), *Big history: the Big Bang life on earth, and the rise of humanity*, 조지형 역, 『빅 히스토리』, 서울: 해나무, 2003.

## 2.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http://buddha.dongguk.edu/bs\\_list.aspx](http://buddha.dongguk.edu/bs_list.aspx)(운허스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 완당전집(阮堂全集).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 철종실록.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301) > 완당전집(阮堂全集).
-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348) > 매천집(梅泉集).
-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

- BT\_0614A\_0040\_010\_0080&viewSync=(검색일: 2017.06.28).  
<http://dic.daum.net/index.do?dic=hanja>(검색일: 2015.12.04).  
<http://dic.daum.net/index.do?dic=kor>(검색일: 2015.12.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7_0013563825&cID=10813&pID=10800), 『뉴시스 제주』(2015.03.29), “제주대 스토리텔링연구센터, 내달 추사 김정희 체험 행사” (검색일: 2015.09.30).  
<https://brunch.co.kr/@kinzz00/13> by 꾸마(검색일: 2016.05.06).  
김승범, 『제주매일』(2016.05.04), “올 제주인구 65만 돌파…기존 주택계획 등 무의미”,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715>(검색일: 2016.05.05).  
『한라일보』(2012.01.09),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간옹 이익(李瀾)과 김만일의 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28454000387599240>(검색일: 2017. 03.30).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eju.grandculture.net>(검색일:2016.04.25).